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러시아

Russian Federation

2020년 12월 4일 | 선임연구원 조영관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 안정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일반개황

면적 17,098천 km ² 	인구 1.5억 명 (2020 ^f)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 	대외정책 동북아시아 국가, 신흥국들과의 협력 
GDP 14,641억 달러 (2020 ^f) 	1인당GDP 9,973달러 (2020 ^f) 	통화단위 Russian Ruble(RUB) 	환율(U\$기준) 75.3 (2020 ^f) 

- 러시아는 세계 최대 면적의 영토를 보유한 국가이며, 2019년 기준 세계 2위의 원유생산국이자 세계 2위의 천연가스 생산국으로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푸틴 대통령이 2020년 7월 개헌을 통해 2024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됨에 따라 2036년까지 장기 집권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 2014년 이후 에너지, 금융, 군수 등을 비롯한 주요 산업에 대한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는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에 따른 세계경기 침체와 그로 인한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4.1%의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서방의 대러 제재가 지속됨에 따라 미국, EU와의 관계가 악화된 반면, 중국과는 투자 및 에너지, 군사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음.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90. 9. 30 구소련과 국교수립, 1991. 10. 12 러시아가 승계 (북한과는 1948. 10. 12 수교)

주요협정 무역협정('90), 원자력협력협정('99), 관광협정('01), 에너지분야협력협정('02), 항공협정('03), 우주기술협력협정, 가스산업협정('06), 비자협정('10), 해상운송협정('11), 근로활동협정('12), 사증면제협정('14)

교역규모

(단위 : 천 달러)

구분	2017	2018	2019	주요품목
수출	6,906,618	7,320,899	7,774,133	합성수지, 차량, 송신기기, 의류,
수입	12,039,530	17,504,050	14,566,507	석유, 알미늄괴, 철강, 농축우라늄

해외직접투자현황('20.6월 누계, 총투자기준) 608건, 2,854,278천 달러

국내경제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f
경제성장률	0.2	1.8	2.5	1.3	-4.1
소비자물가상승률	7.0	3.7	2.9	4.5	3.4
재정수지/GDP	-3.7	-1.5	2.9	1.9	-5.3

자료: IMF

코로나19로 인한 세계경기 침체와 국내소비 감소 등으로 2020년 마이너스 경제성장 전망

- IMF는 2020년 10월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WEO) 보고서를 통해, 2019년 1.3%의 저성장을 기록했던 러시아 경제가 2020년에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봉쇄조치 단행, 국제유가 하락과 이로 인한 수출 및 가계소비 감소, 고정자본투자 감소 등의 영향으로 -4.1%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 러시아 경제개발부의 10월 발표에 따르면, 1~9월 러시아 경제는 전년동기 대비 실질GDP성장률 -3.5%, 산업생산증가율 -2.9%, 투자증가율 -4.0%, 소매유통증가율 -4.8%, 실질임금증가율 2.6%, 소비자물가상승률 3.7% 등을 기록하였음. 러시아 경제개발부는 이를 바탕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을 -3.9%, 고정자본 투자증가율을 -6.6%, 소매유통증가율을 -4.2%로 각각 전망하였으나, 2021년 및 2022년에는 경제성장률이 각각 3.3% 및 3.4%로 반등할 것이라고 전망함.
- 러시아 기업들의 영업이익은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줄어든 7~8월에는 전년 수준으로 회복되었으나, 2~6월의 대폭적인 영업이익 감소의 영향으로 1~8월 중 전년동기 대비 -36.8%를 기록하였음. 특히, 대규모 경제봉쇄를 단행한 3~5월의 기업 영업이익은 지난 16년 동안 최저 수준을 기록하며 전년동기 대비 -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1] 러시아의 고정자본투자증가율과 소매유통증가율 추이

단위: %



자료: 러시아 경제개발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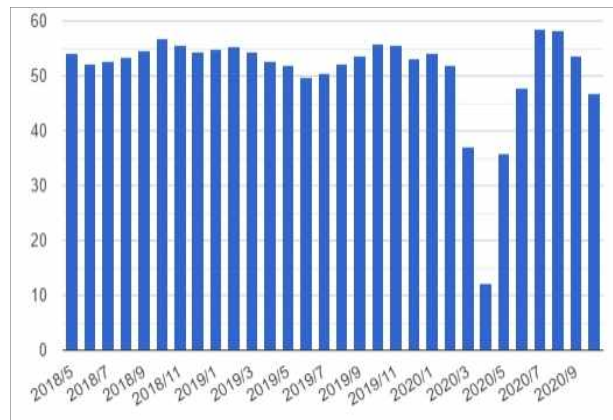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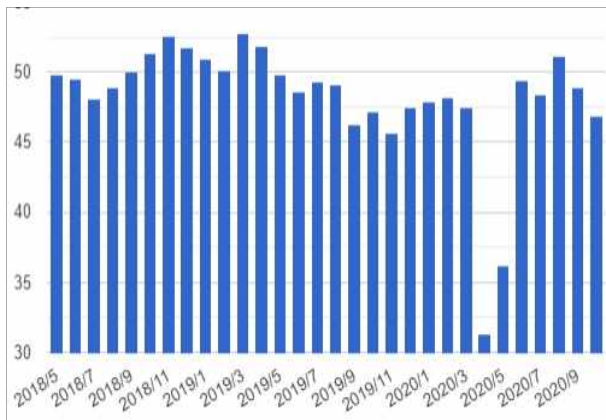
국내경제

국제기구 및 러시아 정부, 최근 러시아 경제성장률 전망의 연이은 상향 조정

- IMF는 10월 WEO 보고서를 통해 올해 러시아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6월의 -6.6%에서 -4.1%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OECD도 9월 발표에서 올해 러시아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존의 -8~-10%에서 -7.3%로 상향 조정하였음.
- 앞서 8월 말 러시아 경제개발부도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존의 -5%에서 -3.9%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러시아 중앙은행도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4월의 -4.0~-6.0%에서 10월에는 -4.0~-5.0%로 상향 조정하였음.
- 러시아 경제개발부는 2분기 성장률이 당초 전망치인 -9.6%보다 개선된 -8.0%를 기록함에 따라 2020년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였다고 발표함. 이는 미국(-9.1%), 유로존(-15.0%), 일본(-9.9%) 등 다른 주요국들의 2분기 성장률 대비 양호한 수치임.
- 이러한 성장률 개선의 양상은 러시아의 제조업 및 서비스 부문의 구매자관리지수가 3월 급격히 하락한 뒤 7~9월에 전년 수준을 회복한 데서도 나타나고 있음.

2020년 경제성장률	IMF	OECD	러시아 중앙은행	러시아 경제개발부
기존 전망치	-6.6% (2020.6월)	-8~-10% (2020.6월)	-4.0~-6.0% (2020.4월)	-4.8% (2020.6월)
최근 전망치	-4.1% (2020.10월)	-7.3% (2020.9월)	-4.0~-5.0% (2020.10월)	-3.9% (2020.8월)

[그림 2] 러시아의 구매자관리지수 추이: 제조업(왼쪽)과 서비스업(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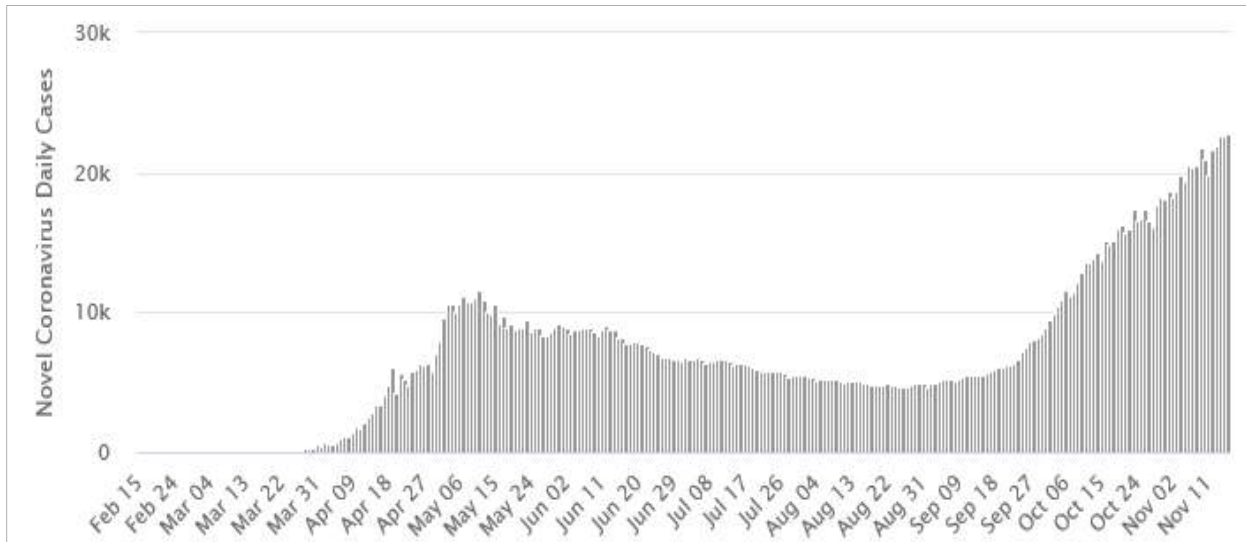


자료: GlobalEconomy.com

국내경제

- 코로나19 사태 관련 봉쇄조치의 비교적 이른 해제와 정부의 각종 지원정책 시행,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 이후 러시아 경제의 대외의존도 감소 등이 경제성장률 전망의 상향 조정의 배경으로 평가됨.
- 러시아는 3월 말부터 코로나19에 대응하여 봉쇄조치를 시행하였으나, 5월 중순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코로나19 제한조치를 해제한 바 있음.¹⁾
- 2014년 시작된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 초기에는 주가, 환율, CDS 등 지표들이 큰 변동성을 보였으나, 금융 및 자본시장의 대외의존도가 감소하면서 점차 안정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²⁾
- 다만, 10월 초 이후 러시아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됨에 따라 향후 경제성장률이 전망치보다 하락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11월 16일 기준 러시아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는 22,778명으로 코로나 19 발발 이후 가장 많은 수를 기록함.

[그림 3] 러시아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 추이



자료: <https://www.worldometers.info/coronavirus/country/russ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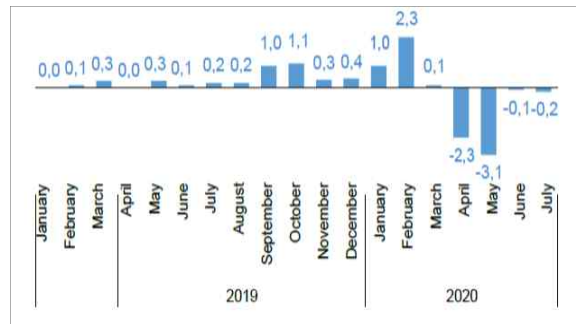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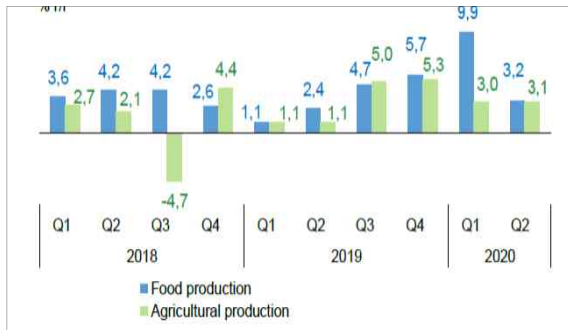
- 1) 9월 이후 확진자 수가 다시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10월 말과 11월 초 일일 확진자 수가 연일 최대 규모를 기록함에 따라 러시아 정부는 다시 경제봉쇄 조치를 도입함. 정부는 10월 말 강화된 코로나19 방역 체제 시행을 통해 오후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식당, 술집, 영화관 등의 영업을 금하고, 공공장소와 대중교통, 엘리베이터 등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였음. 또한 모스크바에서는 10월 5일부터 시행되어 온 모든 기업 직원의 30% 이상 재택근무 조치를 연장하고, 10월 19일부터 10월 말까지로 예정된 6학년부터 11학년의 중-고등학생에 대한 원격수업도 연장하였음.
- 2) 주식시장의 RTS 지수는 대러 제재 시행 이후 점차 하락하여 2015년 말 760으로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반등하여 점차 상승세를 보여 2019년 말 1,560까지 상승하였음. 또한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2014년 말 13.11%로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러시아 경제의 호전에 따라 2019년 말에는 6.23%로 하락하였음. CDS 프리미엄은 2014년 중반 이후 급격히 상승하여 2015년 1월 말 630bp를 기록하였으나, 2019년 말에는 54.6bp까지 하락하였음.

국내경제

2020년 산업에서 농업분야만이 플러스 성장 전망

- 러시아 경제개발부의 산업별 성장률 전망에 따르면, 2020년 산업에서 농업분야만이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농업생산 증가율은 1분기 3.0%에서 2분기 3.1%로 둔화하였으나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음(식료품 생산 증가율은 1분기 9.9%, 2분기 3.0% 기록). 이러한 농업 부문의 성장은 대러 제재 이후 러시아의 대응 제재에 따른 외국 농산물 수입 감소, 정부의 지원정책 등의 결과로 평가됨.
- 반면 전체 산업생산 증가율은 1분기 1.5%에서 2분기 -8.5%로 크게 하락한 데 이어 7월 -8.0%, 8월 -7.2% 등을 기록하고 있음. 건설 부문은 2월 2.3%, 3월 0.1%를 기록한 이후 4월 -2.3%, 5월 -3.1%로 하락하였음.

[그림 4] 러시아의 농업 부문(왼쪽) 및 건설 부문(오른쪽) 성장률
(2018.1분기 ~ 2020.2분기)(전년동기 대비)



자료: 러시아 경제개발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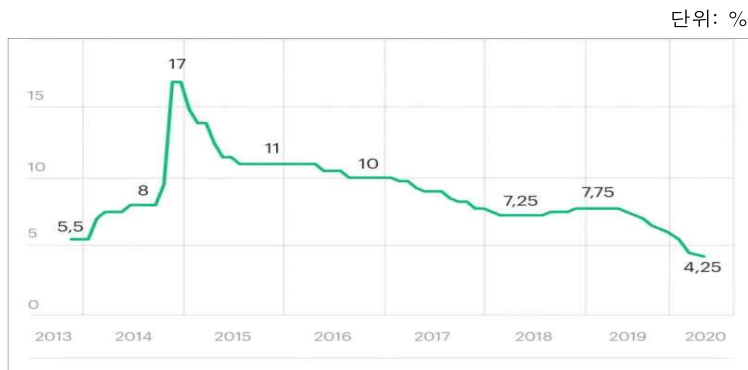
국제유가 하락과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 둔화 전망

- IMF는 10월 WEO 보고서에서 러시아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019년의 4.5%에서 2020년에는 3.4%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러시아 경제개발부도 2019년의 5.3%에서 2020년에는 2.3%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함.
- 2019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서방의 경제제재 지속과 부가가치세율 인상(18%→20%)에 따른 일부 상품의 가격 인상으로 인해 2018년의 2.9%에서 4.5%로 상승하였음.
- 2020년에는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경기침체로 소비가 위축되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3%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 러시아 중앙은행은 2019년 하반기 이후 소비자물가상승률 둔화 추세와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금리인하 조치에 따라 점진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였으며, 2020년에도 경기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있음.

국내경제

- 2019년에는 6월 이후 연말까지 네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6.5%까지 인하하였으며, 2020년에도 연중 기준금리를 네 차례 인하하여 11월 현재 구소련 해체 이후 최저 수준인 4.25%를 유지하고 있음.³⁾ 10월 23일 중앙은행 정기이사회는 루블화 환율 상승에 따른 단기적 물가상승 압력으로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하였음.

[그림 5] 러시아 기준금리 추이(2013.12월 ~ 2020.6월)



자료: 러시아 중앙은행

대러 제재는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 부정적 영향

- 미국과 EU의 대러 제재 지속 및 확대는 외국인투자 유입에 영향을 주고 있음.
-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은 2016년 372억 달러에서 2017년 260억 달러, 2018년 133억 달러로 감소하였음. 2019년에는 투자유입액이 317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나 러시아 중앙은행은 이는 야말 LNG 사업에 대한 일회성 투자에 따른 것이며, 외국인직접투자는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라고 평가하고 있음.⁴⁾
- 서방의 대러 제재에 따라 외국 기업들은 러시아 기업과의 금융 거래 제한과 함께 에너지, 방위산업 및 석유개발 등의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제한받고 있음.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지출 증가로 재정수지 적자 전환 전망

- 재정수지는 2018~19년 유가회복세에 따라 흑자를 기록했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에 따른 세입 감소에 따라 적자로 전환됨.
- 재정수지는 저유가의 영향으로 2013~17년 적자를 기록했으나 2018년 GDP 대비 2.9%의 흑자로 전환되었고, 2019년에도 GDP 대비 1.9%의 흑자를 기록함. 2018년 이후의 재정수지 흑자는 산유국들의 원유 감산 합의, 세계경제 회복세, 중동 정세 불안정 등으로 국제유가가 상승함에 따른 국영 석유기업들의 원유수출 수입(收入) 증대와 그로 인한 세입 증가에 기인함.
- IMF는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에 따른 에너지 국제가격 하락으로 러시아 전체 세입의 40%를 점유하는 에너지 부문의 세입이 감소하여 재정수지가 GDP 대비 -5.3%의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함.

3) 러시아 기준금리는 국제유가 하락과 서방의 제재로 급격한 경기침체를 겪었던 2014년 말부터 2015년 초에 17%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음.

4) 러시아 중앙은행은 2019년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 증가는 국영기업 Novatek이 추진하는 북극 LNG-2 프로젝트의 두 차례에 걸친 지분 매각이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Novatek이 보유하고 있던 북극 LNG-2 지분은 2019년 3월 10%, 7월 30%가 매각되었고, 전체 매각대금은 6,750억 루블(약 100억 달러)이었음. 이 지분은 프랑스 Total, 중국 CNODC와 CNOOC, 일본 미쓰이물산이 각각 10%씩 인수하였음.

국내경제

- 러시아 재무부는 9월 발표에서 2020년 재정수지를 GDP 대비 -4.4%의 적자로 전망하였으며, 2021년에도 GDP 대비 -2.4%의 적자를 전망하였으나 2022년에는 GDP 대비 1%의 흑자 회복을 전망하였음.
- 재무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2021~23년 예산안을 하원에 제출하였음. 동 예산안에 따르면 2021년에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국영 석유기업의 원유수출 수입 증대로 재정수입이 증가하고, 긴축 재정정책을 통해 재정지출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아울러 2023년 재정수지는 GDP 대비 1.1%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5)

[표 1] 러시아 재무부의 예산안 상의 재정수지 전망

단위: 조 루블/%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재정수입(조 루블)	17.9	18.8	20.6	22.3
재정지출(조 루블)	22.6	21.5	21.9	23.7
재정수지(GDP 대비 %)	-4.4	-2.4	-1.0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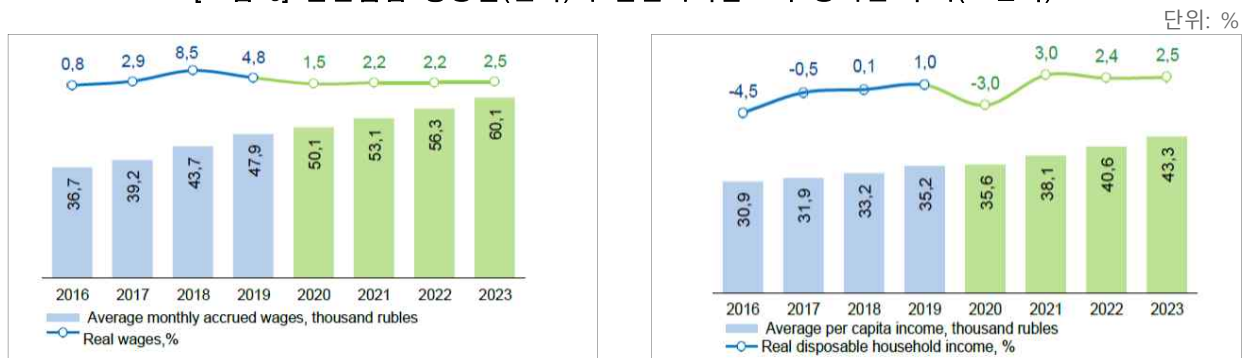
자료: duma.gov.ru

- 한편, 러시아 의회는 2021년부터 연간 소득 500만 루블(약 7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한 개인세율을 13%에서 15%로 인상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음. 동 개정안은 2021년 1월부터 발효되며, 러시아 정부는 향후 세수 증대분을 보건 분야 발전을 위해 사용할 계획임.

코로나19 여파로 실질임금 상승률 및 실질가처분소득 증가율 둔화 전망

- 실질임금 상승률은 2019년 4.8%에서 2020년에는 1.5%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명목임금 상승률은 2018년 11.6%, 2019년 9.5%의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나, 2020년에는 1분기 8.8%를 기록한 후 2분기에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기업활동 침체의 영향으로 3.0%에 그칠 것으로 추정됨.
- 실질가처분소득 증가율은 2018년 0.1% 및 2019년 1.0%를 기록하였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3.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다만, 2021년에는 경기 회복에 힘입어 다시 3.0%로 반등한 뒤 2022년 2.4%, 2023년 2.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 6] 실질임금 상승률(왼쪽)과 실질가처분소득 증가율 추이(오른쪽)



자료: 러시아 경제개발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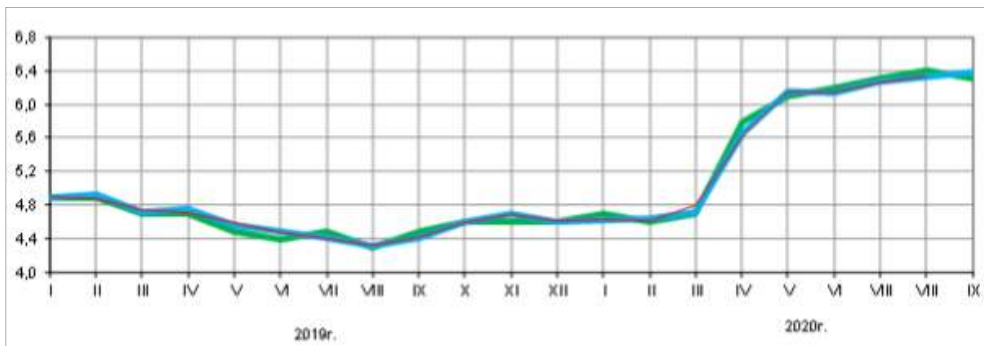
국내경제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실업률 상승 추세

- 코로나19의 영향에 따른 기업활동의 위축으로 2020년 3월 이후 실업률이 상승하고 있음.
- 실업률은 3월 4.7%에서 4월 5.8%로 상승한 데 이어 6월 이후 6.2~6.4%를 유지하고 있음. 9월 실업률은 6.4%로 전년동기 대비 1.8%p 상승하였음.
- 지역별 실업률은 북카프카즈 연방 관구가 15%로 가장 높고, 이어 시베리아연방 관구 8.3%, 극동연방 관구 6.5% 등인 반면, 수도 모스크바가 위치한 중부연방 관구 지역은 가장 낮은 4.4%를 기록함.

[그림 7] 러시아 실업률(2019년 1분기~2020년 9월)과 고용지표

단위: %



구 분	2020년 3분기	2020년			2019년 9월	2019년 9월 대비 2020년 9월 증감
		7월	8월	9월		
노동가능인구(명)	75,174	74,960	75,303	75,258	75,578	-320
고용인구(명)	70,402	70,229	70,495	70,482	72,207	-1,725
실업인구(명)	4,772	4,731	4,808	4,777	3,371	1,406
고용률(%)	58.3	58.1	58.3	58.3	59.6	-1.3
실업률(%)	6.3	6.3	6.4	6.3	4.5	1.8

자료: 러시아통계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지원정책 시행

-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정부와 중앙은행은 기업에 대해 세제, 임금, 대출, 임대료, 채무 유예 등의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환율 대응) 중앙은행은 3월 초 루블화 환율 상승에 대응하여 외화매입의 중단과 국부펀드 보유 외환의 매각 실시를 발표한 바 있음.
- (기업 지원)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항공 및 관광 부문 등의 기업에 대한 납세 기한 연기, 기존 대출의 연장 및 정부 지급보증 등의 지원정책을 시행함.
- 중소기업에 대한 저리대출 및 지급보증 확대, 공공기관 소유 부동산 임대료 지불유예 등 조치로 3분기 중소기업 대출은 전년동기 대비 약 60% 증가한 약 1.4조 루블(약 148억 달러)에 달하였음. 이외에도 의료 및 보건 분야 생산업체에 대한 여신조건 완화 정책을 실시함.

5) 동 예산안에서 배럴당 유가는 2020년 42.8달러 및 2021년 45.3달러, 달러당 루블화 환율은 2021년 72.4루블 및 2022년 73.8루블로 가정하였음.

국내경제

- (금융)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개인과 기업에 대해 대출원리금 상환유예 한도를 설정함.
 - 중앙은행이 규정한 범위를 초과하지 않은 대출은 원리금 상환유예가 가능함. 동 범위는 개인 25만 루블(약 2,600달러), 개인사업자 30만 루블(약 4천 달러), 자동차 대출 60만 루블(약 8천 달러), 주택담보 대출 150만 루블(약 2만 달러) 이내로 각각 설정되었음.
- (고용) 정부는 코로나19로 530만 명의 중소기업 종사자를 포함한 670만 명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음.
 - 50여개의 은행들이 참여하여 임금 지불을 위해 3,050억 루블의 무이자 자금을 지원하며, 2020년 6월부터 2021년 4월 1일까지 2%의 이자율로 57억 루블을 지원하고 있음. 정부는 이외에도 채무상환 유예, 취약계층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정부는 기업들이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기업의 코로나19로 인한 인원 감축에 대해 고용노동부, 국세청 등이 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원격근무와 관련된 노동시간, 휴식시간, 적용 직종, 실시 사유 등을 규정하는 원격근무법이 의회에서 논의 중이며, 동 법 제정시 2021년 1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원격근무자의 수는 2019년에는 3만 명에 불과하였으나, 현재 35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됨.
-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개발) 러시아 정부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 러시아 보건당국은 9월 코로나19 백신인 '스푸트니크 V'를 승인하였으며 10월 중순에는 두 번째 백신인 '에피박코로나'도 승인하였음. '스푸트니크 V' 백신은 현재 모스크바 시민 3만 명을 대상으로 3차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고 벨라루스, 베네수엘라 등 해외에서도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으며, 브라질, 인도, UAE 등에서도 시험을 계획하고 있음. '에피박코로나' 백신도 모스크바에서 3천여 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3차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음.
 - 또한 6월 러시아 보건당국은 자체 개발한 코로나19 치료제를 승인하였으며, 향후 중앙아시아, 중동, 남미 국가들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해외에 공급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대외거래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f
경 상 수 지	24,469	32,179	115,680	65,337	26,269
경상수지/GDP	1.9	2.1	7.0	3.8	1.8
상 품 수 지	90,215	114,558	195,058	165,252	93,814
상 품 수 출	281,709	352,941	443,915	419,851	323,377
상 품 수 입	191,494	238,384	248,857	254,599	229,563
외 환 보 유 액	308,031	346,507	371,733	433,297	447,414
총 외 채	511,752	518,213	454,680	490,941	518,169
총외채잔액/GDP	40.0	32.9	27.3	28.8	35.4
D.S.R.	17.3	13.4	17.5	17.0	21.4

자료: IMF, EIU

세계경기 침체에 따른 에너지 국제가격 하락으로 상품수출액이 감소하고 경상수지 흑자 규모 감소 전망

-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세계경기 침체에 따른 에너지 국제수요 감소 및 국제가격 하락은 러시아의 핵심 수출품목인 원유 및 천연가스 수출액의 감소를 초래하여,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은 2019년 3.8%에서 2020에는 1.8%로 절반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에너지 국제가격 하락(우랄산 원유의 배럴당 국제가격은 2019년 63.6달러에서 2020년에는 41.8달러로 하락)의 영향으로 상품수출액은 2019년의 4,198억 달러에서 2020년에는 3,234억 달러로 거의 20%나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상품수입액도 경기침체로 인한 국내소비 위축에 따라 2020년에는 전년대비 10%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러시아 국내경기 침체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각국의 국경 봉쇄로 해외여행이 거의 완전히 중단됨에 따라 서비스 수입이 감소, 서비스수지 적자 규모는 2019년 1~9월 270억 달러에서 2020년 1~9월에는 120억 달러로 대폭 축소된 것으로 추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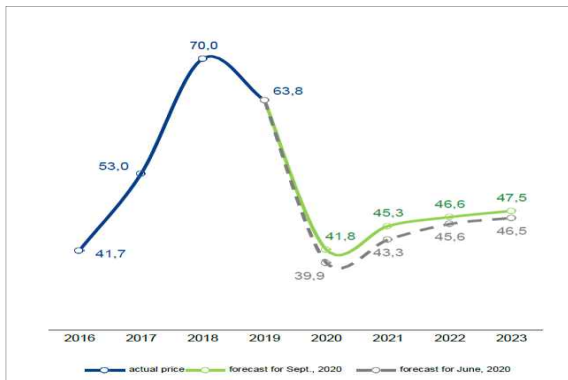
대외거래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 루블화 환율 상승 전망

- 러시아 경제가 원유 및 천연가스 수출에 크게 의존함에 따라, 루블화의 미 달러당 환율 동향은 통상적으로 국제유가 동향과 역(reverse)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우랄산 원유의 배럴당 국제가격이 2019년 63.8달러에서 2020년 41.8달러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러시아 경제개발부는 루블화 연평균 환율이 2019년 64.7루블에서 2020년 71.2루블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그림 8] 우랄산 원유 국제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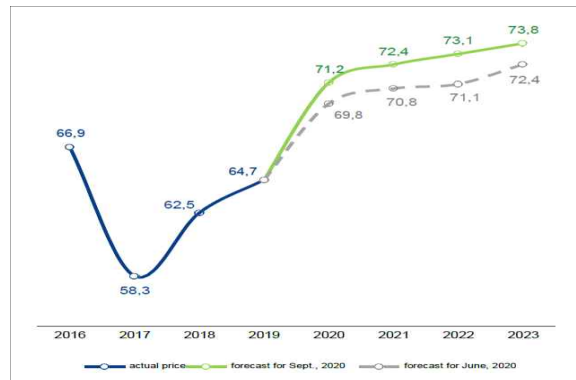
단위: 달러/배럴



자료: 러시아 경제개발부

[그림 9] 루블화 환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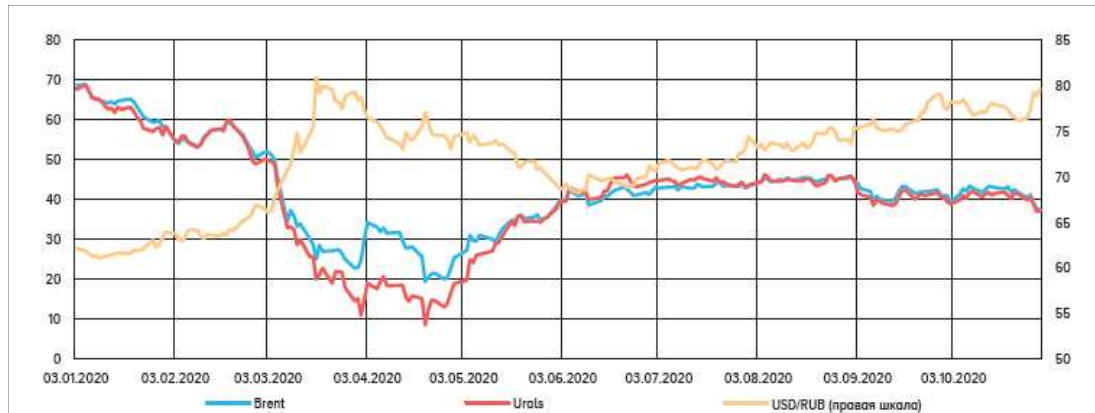
단위: 루블/달러



자료: 러시아 경제개발부

- 올해 3월 코로나19 사태와 OPEC+ 감산합의 실패 후 국제유가 하락으로 루블화 환율이 급격히 상승하였으며, 최근에도 국제유가 약세 지속에 따라 루블화 환율은 전반적으로 상승 보합세가 지속됨.
- 루블화 환율은 연초에 달러당 61루블에서 코로나19 사태와 OPEC+ 감산 합의 실패에 따른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3월 5일 달러당 35루블에서 3월 말에는 달러당 80.9루블까지 상승하였음. 이후 환율은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하락세를 보였으나, 국제유가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선 9월 이후에는 다시 상승하며 11월 현재 1달러 75~80루블에서 상승 보합세를 형성하고 있음.

[그림 10] 우랄산 유가(달러/배럴)와 루블화 환율 변동 추이(2020.1월 ~ 2020.10월)



자료: Thomson Reuters

외채상환능력

외채 관련 주요 지표는 전반적으로 악화 추세이나 안정적 수준 유지

- 2020년의 외채 관련 주요 지표들은 코로나19 사태와 국제유가 하락세의 여파로 2019년에 비해 악화 되는 추세이나, 여전히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2019년 말 총외채잔액은 GDP의 28.8%, 총수출의 91.5% 수준이었으나, 2020년 말에는 세계경기 침체에 따른 수출 하락과 GDP 감소의 영향으로 GDP의 35.4%, 총수출의 124.2%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2019년 말 16.9%에서 2020년 말에는 21.4%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2020년 말 외환보유액은 경상수지 흑자 감소에도 불구하고 월평균수입액의 14개월 분의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2020년 9월 초 기준 GDP의 11.7%에 달하는 규모의 국부펀드 보유

- 러시아 정부는 에너지 수출소득을 통해 형성된 국부펀드(National wealth fund)를 운영하고 있음. 국부펀드는 재정적자 보전, 연금기금 균형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20년 9월 초 기준 GDP의 11.7%인 1,776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됨.
- 러시아 정부 규정에 따라 중앙은행은 GDP의 7%를 상회하는 국부펀드 자금을 산업이나 인프라 프로젝트 등에 투자할 수 있음.

구조적취약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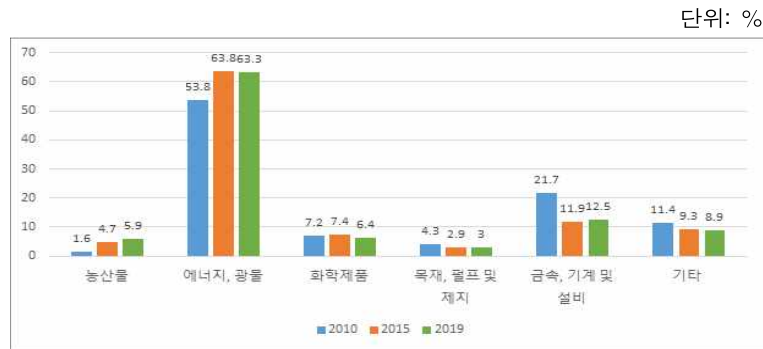
에너지 의존형 경제구조 지속으로 국제유가 변동에 매우 취약

- 에너지 부문에 과도하게 의존적인 경제구조로 인해 국제유가 등락에 따른 주요 경제지표의 변동성이 높으며, 경제의 중장기적 안정성 유지와 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경제구조 개혁이 필수적임.
- 러시아의 경제성장률은 2014~15년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 마이너스를 기록하였고 2016년 이후 국제유가 상승으로 플러스를 회복하였으며, 2019년에는 다시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 둔화된 바 있음.
- 지난 10년 동안 전체 수출규모에서 차지하는 원유의 수출비중은 29~36%에 달하며, 에너지 및 광물 자원이 전체 상품수출의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음.

구소련 시절부터 제조업 부문의 취약성 지속

- 제조업 부문이 러시아 상품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기준 금속/기계/설비 12.5%, 화학제품 6.4% 등으로, 2010년(금속/기계/설비 21.7%, 화학제품 7.2% 등)과 비교해도 감소한 수치를 나타내는 등 제조업 부문의 취약성이 구소련 시절부터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음.
- 러시아 제조업의 취약성은 중소기업의 부진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러시아 GDP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기준 23%로, 50%를 상회하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그림 11] 러시아의 주요 수출품(2010·2015·2019년)



자료: 러시아통계청.

금융 부문의 경쟁력이 취약하며 대규모 국영은행의 높은 자산비중

- 2017년 최대 민간은행의 부도 위험에 대응하여 중앙은행이 56억 달러에 달하는 구제금융을 실시하는 등 2008~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타격을 받은 금융권의 취약성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2019년 4월 기준 전체 은행 자산의 62%를 국영은행들이 보유하고 있으며, 최대 은행인 국영 스베르뱅크(Sberbank)의 자산이 전체의 30.4%에 달하고 있음. 또한 자산규모 3대 은행인 스베르뱅크, VTB, 가즈프롬뱅크 등이 모두 국영은행임.
- 러시아의 금융 시스템은 국제기관의 평가에서도 낮은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음. 2019년 글로벌경쟁력 지수 순위에서 금융시스템은 141개국 가운데 95위(러시아의 전체 순위 43위)를 기록하였는데,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118위), 벤처 자본 이용 가능성(94위)도 낮은 순위에 머물러 있음.

성장잠재력

IT 및 혁신 부문의 산업육성 정책 강화

- 러시아 정부는 '2025 러시아 디지털 경제프로그램', '2020년까지 러시아 연방 혁신발전 전략', '2018~2025 과학기술발전 국가프로그램'과 '국가기술 이니셔티브 2035' 등의 혁신산업 추진 전략을 발표하며 IT 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또한 정부는 혁신산업 발전을 위해 '러시아 벤처기업'(벤처산업의 모태펀드), '혁신촉진펀드'(고부가가치 기술 부문 중소기업 지원) 등을 설립하고 혁신 및 고부가가치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수출지원, 대외협력 지원을 추진함.
- 이와 함께 러시아 정부는 2017년 이후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10대 핵심기술을 선정하고 이 기술 발전을 위해 지원하고 있음.

[표 2] 러시아 혁신산업 지원 기구

구분	관련 기관
혁신 부문 무상 금융지원	스콜코보 혁신센터, 로스나노, 혁신촉진펀드
대출	로스나노, 대외경제은행, 중소기업은행, 지역도시 개발펀드
직접투자	로스나노, 대외경제은행, 러시아직접투자펀드
벤처기업 금융지원	러시아 벤처기업(RVC), 로스나노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공사, 중소기업은행
수출 지원	러시아 엑스포 센터, 러시아수출신용 및 투자보험
산업발전 단지	러시아 산업단지 연합, 특별경제구역, 클러스터 및 기술단지 연합

자료: 러시아 산업통상부 등 참고 작성.

- 러시아 정부는 2010년 러시아 첨단 산업 발전을 위해 모스크바 인근의 스콜코보 지역에 기술혁신 센터를 설립하여 기업을 지원하고 있음.
- 동 센터에는 약 400만 m²의 부지에 글로벌 기업들을 비롯한 혁신기업들이 입주해 있음. 삼성전자, LG 전자, 현대자동차 등 러시아에 직접투자한 우리 기업들도 동 센터에 인공지능센터를 설립하거나 현지 기업과 기술협력을 하고 있음.
- 한편, 러시아 정부는 올해 10월 말 로스텍(러시아 기술공사), 로스텔레콤이 공동으로 계획한 5G 발전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음.
- 동 로드맵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5G 가입자를 2023년까지 20만 명, 2024년까지 500만 명, 2030년까지 5,000만 명으로 달성하는 목표를 제시하였음.
- 아울러 IT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도입하여, 2021년부터 법인세율은 20%에서 3%로, 공적보험료율은 14%에서 7.6%로 각각 인하하였음.

성장잠재력

북극 지역에 투자유치 및 개발 적극 추진

- 러시아 의회는 지난 7월 초 북극 지역을 경제특구로 지정하는 내용의 '북극 지역의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연방법'을 통과시켰음.
- 동 법의 핵심은 광물 및 에너지 채굴 분야를 제외한 북극 지역의 모든 산업 부문에 100만 루블(약 1.5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10년간의 소득세, 재산세, 토지세 면제 등 세제 혜택과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임. 동 법에 명시된 북극권의 범위에는 무르만스크주, 네네츠 자치구, 추치 자치구, 야말로-네네츠 자치구, 아르한겔스크시, 노릴스크시, 카렐리야 자치공화국 등이 포함됨.
- 한편, 러시아 극동북극개발부는 지난 3월 북극 지역의 인프라 발전과 주거환경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북극 정책 원칙 2035"를 발표하였으며, 10월 말에는 후속 조치로 "북극 개발 및 국가안보 전략 2035"를 발표하였음.
- 이러한 북극 정책에서는 러시아 북극 지역의 주요 항만인 사베타항, 무르만스크항 등의 현대화를 통한 북극항로 물류망 발전을 강조하고 있으며, 아울러 북극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북극 지역의 관광산업 발전 등의 사회경제적 측면과 함께 북극 지역을 통한 국제협력 확대, 지역의 안보적 역할 강화 등의 정치·안보적 내용도 포함하고 있음.
- <북극개발 및 국가안보 전략 2035>에서는 1단계(2020-24년)에서는 북극지역의 경제사회발전 가속화를 위한 메커니즘 조성을 계획하며, 2단계(2025-30년)에서는 경제활동 및 투자수요 등을 고려한 북극 지역 경제활동 경쟁력 강화, 북극 관광 인프라 구축, 북극횡단 지하 통신망 구축 등을 추진하고자 함. 또한 3단계(2031-35년)에서는 대륙붕과 육상에서의 LNG 생산, 가스화학 산업, 원유 생산 등 자원 개발과 기타 광물의 가공, 북극항로 경쟁력 확보 및 국제 컨테이너 운송 허브 구축 등을 추진하고자 함.
- 또한 러시아 정부는 야말 등 북극 지역의 유전 및 가스전 개발을 통한 에너지 생산 증대를 추진하고 있음.
- 북극 지역에는 19개의 유전지대에 약 900억 배럴의 원유와 47조 m³의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러시아 정부는 동 지역의 에너지 자원 개발이 경제성장을 지속시키게 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향후 야말 LNG, 북극 LNG-2 등의 프로젝트를 통해 LNG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연 1,650만 톤의 생산능력을 보유한 야말 LNG는 2017년부터 생산을 시작했으며, 연간 생산능력 1,980만 톤 규모의 북극 LNG-2 프로젝트는 2022~23년 중 생산 개시를 계획하고 있음.
- 국영 석유기업 로스네프트는 올해 일일 200만 배럴(2019년 러시아 전체 생산의 약 9%)의 원유를 생산할 수 있는 북극해의 대규모 원유 생산 프로젝트인 보스톡 오일(Vostok Oil)의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음. 보스톡 오일은 로스네프트와 민간 기업 네프티가즈홀딩(Neftegazholding)이 공동으로 설립한 합작회사로, 여러 건의 원유 및 천연가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성장잠재력

화물 수송 증대를 위한 북극 항로 개발 추진

- 러시아 정부는 북극 항로의 활성화를 통한 화물 수송 증대를 도모코자 2019년 말 '2035 북극해 항로 인프라 개발 계획'을 승인하고, 동 계획에 따라 항만 인프라 개선, 선박 건조 등을 통해 북극 항로를 이용한 에너지 자원, 컨테이너, 수산물 등의 물류량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 러시아 정부는 북극 항로를 통한 LNG 운송 활성화를 위해 캄차트카에 LNG 해상 환적 터미널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추코트카의 페벡 항, 야말로-네네츠의 사베타 항, 무르만스크 항, 극동러시아 지역의 바니노 항, 보스토치니 항, 나호트카 항, 포시에트 항 등 주요 항만들의 터미널 처리 용량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 이와 같은 북극 항로 발전을 위한 인프라 개발계획에는 2024년까지 16척의 구조선박과 13척의 탐사선박을 건조하고 2026년까지 4척의 핵추진 쇄빙선을 건조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이외에도 러시아 정부는 무르만스크 항만에 약 6,500만 달러를 투자하여 컨벤션 센터, 북극 국제 생태 박물관 등을 포함한 국제 북극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음. 이를 위해 정부는 2020년 5월 극동러시아 이외의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이 지역을 선도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투자기업에 대해 세제 및 행정적 혜택이 제공되도록 함.

정책성과

수입대체산업 전략의 추진 미흡

- 2014년부터 추진된 수입대체산업 육성 정책은 성과보다 식료품 가격 상승, 공업생산을 위한 물품이나 의약품의 부족 등의 부작용을 초래한 것으로 평가됨.
- 수입대체산업 육성 정책의 추진 결과 식료품 시장에서 수입품의 비중은 2013년 대비 2018년에는 약 31.2% 하락하였고 국산 식료품의 시장점유율은 증가하였으며, 특히 2018년 기준 곡물, 설탕, 유지(油脂), 육류 등에서 국산제품의 시장점유율이 80~99% 상승하였음. 그러나 식료품 수입 억제에 따른 공급 감소로 인해 전반적으로 식료품 가격이 상승하였으며, 일부 품목에서는 2013년 대비 2018년의 가격상승률이 60% 이상을 기록하였음(버터 79%, 냉동 생선 68%, 양배추 62% 등).
- 반면, 2013년의 48.6%의 수입 비중을 기록한 기계 및 설비에서는 2018년에도 47.3%의 높은 비중이 지속되고 있음. 의약품도 2015년 정부가 일부 품목들에 대해 수입을 제한하고 국내 생산을 추진하였으나, 수입 감소로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정책성과

특별투자계약법 개정 등 외국인투자 유치 활성화 정책 추진

- 러시아 정부는 2019년 특별투자계약법(SPIC 2.0)의 개정을 통해 외국인투자 유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음.
- 2015년에 처음 도입된 특별투자계약 제도는 외국 기업이 러시아 하이테크 프로젝트나 제조업 부문의 기술이전 등의 수입대체산업 부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며, 2019년 러시아 정부는 기존의 제도를 개정하여 투자 시 제공하는 지원을 확대하였음.
- 주요 내용은 기존의 투자액 최소한도(7.5억 루블, 약 130억 원) 폐지, 지원 기간 연장(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 500억 루블(약 9,000억 원) 이상의 투자일 경우 최대 20년까지), 투자자는 향후 투자 관련법의 변동 시에도 기존의 법 테두리에서 보호 등임.
- 투자자는 연방정부 및 지방정부와의 협약 체결을 통해 정부의 지원(산업개발 펀드를 통한 금융지원, 법인세 면제 등)을 받아 제조업 부문에 투자할 수 있음. 또한, 특별투자계약을 체결한 투자자는 공공 조달 사업자 선정 시 우선권을 인정받는 '단일 공급자'(Sole Supplier) 지위를 취득하게 됨.

국제기관들이 평가하는 기업경영여건 순위와 글로벌경쟁력지수 순위 상승 추세

- 세계은행이 매년 발간하는 기업경영여건(Doing Business) 보고서에서 러시아는 2017년 평가대상 190개국 중 35위를 기록하였으며, 2018년에는 31위, 2019년에는 28위로 순위가 계속 상승하였음.
- 평가대상 항목 가운데 건축 인·허가 항목이 2017년 115위에서 2018년 48위, 2019년에는 26위로 크게 개선되었고, 전력 공급 항목도 2018년 12위에서 2019년에는 7위로 개선되었으며, 계약 이행 항목(21위)과 자금 조달 항목(25위)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
-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하는 글로벌경쟁력지수 보고서에서 러시아는 2009년 63위(조사대상 139개국)에서 2014년 45위(조사대상 140개국), 2019년에는 43위(조사대상 141개국)으로 상승하였음.
- 특히, 최근 러시아 정부의 혁신산업 발전정책에 따라 혁신 분야와 ICT 분야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음. 혁신 역량은 2014년 68위에서 2018년 36위, 2019년에는 32위로 크게 개선되었으며, ICT 도입도 2018년 25위, 2019년 22위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음.

정치안정

푸틴 대통령의 집권 연장을 위한 개헌 시행

- 2020년 7월에 실시된 국민투표 결과 개헌안이 찬성 77.92%, 반대 21.27%로 통과되어 푸틴 대통령은 2024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가 가능해졌으며, 2036년까지 장기 집권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 지역별로는 1990년대에 러시아로부터의 독립을 추진하기도 했던 체첸 공화국이 97.92%로 가장 높은 찬성율을 기록했으며, 투르크계 투바인이 대다수 인구인 투바 공화국이 96.79%, 2014년 우크라이나로부터 합병된 크림 공화국이 90.07% 등으로 높은 지지율을 기록함.
- 러시아 85개 지역 가운데 유일하게 반대표가 많은 곳은 찬성 44.42%, 반대 54.57%를 기록한 북서부의 네네츠크 자치구로,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네네츠크 자치구와 아르한겔스크 주의 합병에 대한 반대가 그 원인인 것으로 알려짐.
- 이번 개헌안의 최대 쟁점은 기존 대통령의 임기를 백지화하고 출마를 가능케 함으로써 푸틴 대통령의 재출마를 허용하고 있는 것임.
- 푸틴 대통령은 2000~08년 대통령직 연임 후 2008~12년 총리직 재임을 거쳐 2012년 다시 대통령으로 취임하였으며, 대통령으로서의 임기는 오는 2024년까지임. 이번 개헌으로 푸틴은 2024년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되었으며, 2036년까지 연임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 경우 그의 통치 기간은 32년으로 소련 시기의 스탈린의 집권 기간(30년 6개월)을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한편, 개헌안에 포함된 '러시아 영토의 일부 분리 제한' 조항은 크림 반도 반환 불가를 천명하여 러시아 민족주의 감정에 호소하고 있으며, '연금의 연 1회 이상 인상' 조항은 연금생활자들의 높은 지지를 얻은 것으로 평가됨.
- 개헌안은 이외에도 의회와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평의회 권한을 강화하고 동성 간 결혼을 금지하는 등의 조항을 포함하고 있음.

9월 일부 지역에서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여당 압승으로 푸틴의 굳건한 권력 유지 확인

- 9월 11일 러시아 전체의 85개 주 가운데 18개 주에서 실시된 주지사 직접선거 결과 17개 주에서 여당 후보나 친정부 성향의 무소속 후보가 당선됨.
- 12개 주에서 여당 후보가, 5개 주에서 여당 성향의 무소속 후보가 당선되었음. 특히 세바스토폴을 비롯한 7개 주에서는 여당 후보가 80% 이상을 득표하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음.
- 반면, 야당 후보는 여당 성향의 후보가 출마하지 않은 스몰렌스크 주(자유민주당)에서만 당선됨.
- 지방선거와 동시에 4개 지역에서 실시된 두마(러시아 하원) 보궐 선거에서는 여당 후보가 3개 지역, 친정부 정당 후보가 1개 지역에서 당선됨. 또한 시 의회 및 시장 선거에서도 여당 후보의 당선이 압도적이었음.

정치안정

푸틴 대통령, 부분적 개각으로 극동·북극개발부 등 장관 교체, 극동 개발 지속

- 푸틴 대통령은 11월 9일 알렉세이 체쿰코프 전 러시아 극동개발기금 대표를 신임 극동·북극개발부 장관에 임명하고, 알렉산드르 코즐로프 전 극동·북극개발부 장관을 천연자원부 장관에 임명하는 등 부분적 개각을 단행하였음.
- 신임 체쿰코프 장관은 임명 직후 극동러시아 거주 인구의 '삶의 질' 개선을 업무의 최우선 순위에 둘 것이라고 의회에서 밝혔음.
- 또한 체쿰코프 장관은 현재 경제특구인 선도개발구역에 2,600여 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고 이 기업들이 5조 루블(약 700억 달러)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기존에 추진되어 왔던 극동러시아에 대한 투자유치 및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푸틴 대통령은 에너지부, 교통부, 건설부, 천연자원부 장관 등을 교체하였음.
- 이번 개각을 통해 2012년 5월부터 에너지부 장관을 역임한 알렉산드르 노박 전 장관이 신설된 부총리직에 임명되었으며, 루스기드로(러시아수력발전공사)의 술리노프 사장이 신임 에너지부 장관, 국영 항공사 아에로플로트의 사벨리예프 사장이 신임 교통부 장관으로 각각 임명되었음.

사회안정

푸틴 정권에 비판적인 반정부 세력의 기반 확대

- 2020년 7월에 실시된 개헌에 반대하는 대규모의 시위가 모스크바 등 대도시에서 발생하여 수백 명이 체포되었으며, 푸틴 정권에 비판적인 여론이 청년층을 중심으로 확산된 바 있음.
- 2009년 이후 반정부 활동을 하고 있는 알렉세이 나발니 변호사는 러시아 정계에서 야권의 주요 정치인으로 부상하였음.
 - 나발니는 2017년 모스크바 시장 선거에 출마하여 27% 이상의 득표율을 올린 바 있으며, 2018년에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시도했으나 법원의 횡령죄 판결로 후보 자격이 박탈된 바 있음.
 - 또한 2020년 9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나발니 측과 다른 야권이 공동으로 조직한 '노보시비르스크-2020' 연합은 지역의회 선거에서 노보시비르스크 시 의회 50석 중 4석을 차지한 바 있으며, 선거 이후에도 지속적인 정치운동을 추진하고 있음.
- 극동러시아 제2의 도시인 하바롭스크 시내 중심가에서 7월 초부터 토요일마다 수백 명에서 최대 3만 명이 참석한 반정부 시위가 11월까지 지속되고 있음.
 - 이번 시위는 2004~06년의 살인개입 혐의에 따른 세르게이 푸르갈 주지사에 대한 체포와 모스크바로 압송, 구속에 항의하여 발생하고 있음. 시위대는 '푸틴은 사퇴하라', '우리가 푸르갈이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푸르갈 지사의 재판을 하바롭스크에서 진행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야권에서는 이번 사건이 야당 소속인 푸르갈 지사를 제거하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음.
 - 인구 60만의 도시에서 2만~3만 명이 참석하는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는 것은 러시아에서 이례적인 상황으로,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중앙 지역에 비해 정치, 경제적으로 소외된 극동러시아 지역의 전반적인 반정부, 반푸틴 정서를 나타내고 있음.
 - 지난 7월 실시된 푸틴의 집권 연장을 허용하는 개헌 국민투표 결과, 러시아 전체 평균 77.92%의 지지율을 기록했으나, 하바롭스크 주의 지지율은 이보다 훨씬 낮은 62.28%에 머물러 현 정부에 대한 낮은 지지율을 보여준 바 있음.

사회안정

국제부패지수 순위에서 하위권 기록

-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지수 순위에서 하위권을 기록하며 여전히 부패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음.
- 2019년의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평가한 러시아 부패지수 순위(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는 평가대상 198개국 가운데 137위를 기록하고 있음.
- 이는 기존의 평가인 2008년 147위(평가대상 180개국), 2014년의 136위(평가대상 198개국), 2017년의 138위(평가대상 198개국) 등에서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줌.
- 러시아 정부는 2008년 이후 부정부패 척결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2017년에는 대규모 반부패 시위가 발생한 바 있음.
-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2008년 5월 취임 직후에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국가반부패계획'을 수립하며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부패해소 정책을 추진하였음.
- 2017년에는 반정부 운동가인 알렉세이 나발니의 주도로 메드베데프 당시 총리의 뇌물 수수와 호화 생활을 비난하는 대규모의 시위가 러시아 99개 도시에서 발생한 바 있으며, 이후에도 반부패 운동이 조직화 되어 지속되고 있음.

국제관계

각종 제재로 인한 서방과의 관계 악화

-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 반도 병합과 동부 지역 분리독립주의자들에 대한 지원 이후 미국과 EU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시행하고 있으며, 제재대상이 점차 확대되어 왔음.
-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관련 제재 이외에도 다른 제재대상국들인 북한과의 교역과 시리아, 베네수엘라 등에 대한 지원, 자국 내 정치적 탄압 등으로 제재를 받고 있음.
- 2020년 8월에는 주요 반정부 인사인 나발니의 독극물 중독 사건으로 서방 각국들이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조치를 취하였음. 나발니는 독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구소련이 개발한 '노비츠크' 계열 독극물이 나발니의 혈액에서 발견되어 러시아 정부가 사건의 배후 의혹을 받고 있음.
-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는 러시아의 주요 산업인 에너지, 군수, 금융 등의 부문에 집중되고 있는데, 미국의 노드스트림-2 가스관 관련 제재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힘.
-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유럽으로 공급하게 될 노드스트림-2 가스관은 유럽의 에너지 안보와 밀접하게 연관된 프로젝트로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오스트리아 기업들이 자금을 투자하고 있음. 2019년 12월 미국은 이 가스관 건설에 필요한 선박을 제공하는 외국기업에 제재를 부과하였으며, 이에 동 사업에 참여한 스위스의 특수선박이 전체 구간 1,230km 가운데 약 160km를 남겨두고 참여를 중단하였음.
- 러시아는 에너지와 함께 주요 수출품인 군수제품의 수출에도 제한을 받고 있으며, 제재 대상인 러시아 금융기관들은 외국 금융기관들과의 거래에 제한을 받고 있음.
- 러시아 정부는 서방의 이러한 제재에 대응하여 식료품, 농산물 등의 수입을 제한하는 대응 제재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표 4] 러시아와 서방의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준 주요 사건 일지

사건명	일시	사건 내용
크림반도 병합	2014년 2~3월	친러시아계 무장 세력의 우크라이나 공공기관 점령
우크라이나 동부 분리독립 운동	2014년 4월 이후	러시아계가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이 우크라이나로부터 분리와 자치 선언
말레이시아 항공기 격추	2014년 7월	말레이시아 항공기가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주에서 격추되어 승객 전원 사망 : 분리주의 반군 세력의 소행으로 추정
시리아 내전	2015년 9월	시리아 내전에서 러시아 군이 시리아 정부군을 지원하여 반정부군 공격
영국 스크리팔 독살 시도	2018년 3월	영국에서 발생한 러시아 출신 이중간첩 세르게이 스크리팔과 그의 딸 율리야의 독극물 중독 사건 : 러시아 정부의 개입 의혹
북한 제재 관련	2018년 8월	미국의 제재 대상인 북한의 원유 교역을 위한 러시아 선박 운송 지원
아조프해 통항 제한	2018년 11월	크림 반도 인근 케르치 해협에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함정들을 나포
베네수엘라 제재 관련	2019년	미국의 제재 대상인 베네수엘라 국영 에너지기업과 러시아 기업의 협력
노드스트림 2 가스관 건설	2019년	발트해 해저를 통해 러시아에서 유럽으로의 가스관 연결

자료: 각종 자료 참고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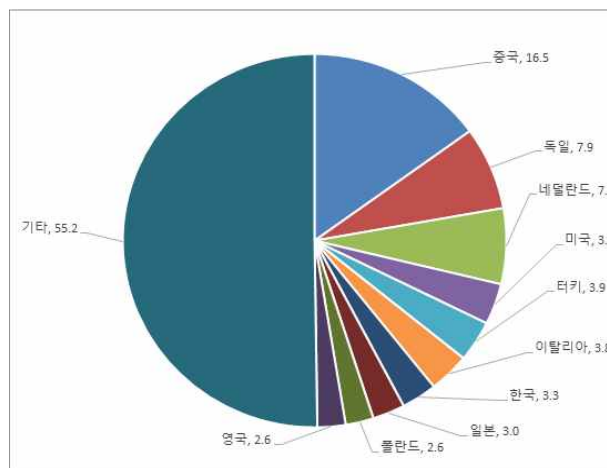
국제관계

중국과의 경제협력 지속

- 중국은 러시아의 최대 교역국으로 부상하여, 2019년 기준 전체 교역의 16.5%(수출의 13.4%, 수입의 22.2%)를 점유하고 있음.

[그림 12] 러시아의 국가별 교역 비중(2019년)

단위: %



자료: www.gipp.ru

- (에너지 협력) 러시아는 중국으로 연결된 '동시베리아-태평양' 송유관과 '시베리아의 힘' 가스관을 통해 원유와 천연가스를 중국에 수출하고 있음.
- 야말 LNG 프로젝트는 러시아 노바텍(지분율 50.1%), 프랑스 토탈(지분율 20%)과 함께 중국의 CNPC가 20%, 실크로드 펀드가 9.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또한 중국은 2023년부터 생산이 전망되는 북극 LNG-2 프로젝트에도 지분을 투자하여, 노바텍(지분율 60%), 토탈(지분율 10%), 일본 미쓰이물산(지분율 10%)과 함께 중국의 CNPC와 CNOOC가 각각 10%씩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표 3] 2014년 이후 러시아와 중국의 주요 에너지 협력

구분	주요 내용
LNG 개발 및 수출	○ 야말 LNG 사업에 참여 (러시아 Novatek 50.1%, 프랑스 Total 20% 지분 보유) - 2014년 1월 CNPC가 20%, 2016년 4월 실크로드 펀드가 9.9%의 지분 인수
	○ 북극 LNG-2 프로젝트 지분 보유: Novatek(60%), Total(10%), CNPC(10%), CNOOC(10%), Japan Arctic LNG(Mitsui와 JOGMEC 컨소시엄, 10%)
	○ 2014년 5월 야말 LNG 사업에서 20년 간 연 300만 톤을 수입키로 합의(동 규모는 전체 생산용량인 1,650만 톤의 약 18%에 해당)
정유공장 설립	○ Rosneft(49%)와 CNPC(51%)가 합작기업 Vostok Petrochemicals를 통해 천진 정제공장을 설립하고 운영 - ESPO를 통해 2020년 이후 연간 910만 톤의 원유 공급 계획
금융	○ 2009년 ESPO 건설에 중국국가개발은행이 250억 달러 규모의 차관 제공(Transneft에 100억 달러, Rosneft에 150억 달러)
	○ 2016년 야말 LNG 사업에 중국국가개발은행, 중국수출입은행이 120억 달러 차관 제공

자료: 각종 자료 참고 작성

국제관계

- (기술 협력) 미국의 제재 이후 러시아와 중국은 연구개발 부문의 상호 협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 미국이 러시아의 크림 반도 합병에 따른 대러시아 경제제재 및 중국과의 무역분쟁에 따른 대중국 무역제재를 지속하자, 미국의 대중국 제재의 최대 타깃인 IT 기업 화웨이는 대러시아 투자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최근 화웨이의 런정페이 대표는 향후 미국의 기존 연구센터를 폐쇄하고 러시아와의 연구개발 분야 협력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음.
- 화웨이는 이미 러시아에 각각 400명, 150명의 연구원을 보유한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니즈니노브고로드와 노보시비르스크, 벨라루스의 민스크에 추가로 연구센터를 설립하였으며 카잔에도 설립을 검토하고 있음. 화웨이는 또한 약 900명의 연구원이 근무하는 화웨이 러시아 연구센터(Huawei Russian Research Institute)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까지 연구원 수를 1,000명으로 늘릴 계획임.
- 아울러 화웨이는 2018년 러시아에 첫 전문매장을 개설한 이후 현재 18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2021년까지 러시아 전역에 50개의 매장을 추가로 개설할 것을 계획하는 등 러시아 소비시장에의 진출 확대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짐.

EAEU 역내 경제통합 강화를 통한 경제협력 추진

- 러시아는 자국이 주도하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의 확대를 도모하고 있으며, EAEU 역내 경제통합이 점차 강화되고 있음.
- 러시아,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즈 등 5개국으로 구성된 EAEU는 역내 교역 및 투자 촉진 등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에너지, 서비스, 금융 등을 비롯한 다양한 부문에서 통합을 추진하고 있음.
- 기존 가입국 이외에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이 가입을 논의하고 있으며, 2020년 10월 쿠바가 옵저버 국가로 가입하였음.
- 또한 EAEU는 외연 확대를 위해 인근국들은 물론 유럽, 중동 지역 국가들과의 FTA 체결을 통한 대외 교역 증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
- 2016년 베트남과의 FTA 체결을 시작으로 2018년 5월에는 중국과 FTA를 체결하였으며, 이란과도 FTA 임시협정을 체결하고 3년 뒤에 본 협정 체결에 합의하였음. 또한 2019년 10월에는 싱가포르, 세르비아와 FTA를 체결하였는데, 싱가포르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의 약 90%에 대한 관세율이 인하되었으며, 향후 10년 이내에 관세율 인하 품목이 전체 수입품목의 97%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한편 EAEU는 현재 인도, 이스라엘, 이집트 등과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음.

국제관계

러시아는 벨라루스, 코카서스, 중앙아시아 등 구소련 지역의 정치, 안보에 적극 개입

- 벨라루스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러시아 정부는 루카셴코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며 경제적 지원을 약속하였음.
- 벨라루스에서는 지난 8월 대통령 선거 이후 부정선거 논란으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였으나, 러시아 정부는 벨라루스 현 정부를 지원하고 있음. 9월 푸틴 대통령은 루카셴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15억 달러 규모의 차관 제공과 군사적 지원을 약속하며 루카셴코 대통령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음. 이후에도 러시아 정부는 벨라루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공급 및 생산기술 제공, 벨라루스 유전 개발 등에서 협력을 추진하고 있음.
- 러시아 정부는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간의 전쟁을 중재하며 구소련 지역 내의 국가 간 분쟁에 긴밀하게 개입하였으며, 이를 통해 역내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음.
- 1991년 소련 해체 이후 아제르바이잔 영토 내에 위치하고 있으나 아르메니아가 실효 지배하고 있는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에서 9월 말 이후 40일 동안 진행된 전쟁은 러시아의 중재로 중단되었고, 양국 간에는 평화협정이 체결되었음
- 구소련 지역이었던 양국에 대해 정치·경제·안보적인 이해관계를 지닌 러시아는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 해결을 위해 설립된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민스크 그룹의 공동 의장국으로 중재를 주도해 왔음. 또한 평화협정 체결 이후 러시아는 향후 5년간 이 지역에 2천 명 규모의 평화유지군을 파견하게 되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됨.
- 그러나 나고르노-카라바흐에서의 충돌로 일부 영토를 상실하게 된 아르메니아에서는 휴전협정의 체결 직후, 휴전협정 체결을 비판하고 총리의 사임을 요구하는 격렬한 시위가 발생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 지역의 분쟁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

[그림 13] 나고르노-카라바흐와 러시아 평화유지군 주둔지역



자료: <https://www.bbc.com> 2020.11.10

외채상환태도

2019년 9월 말 기준 OECD 회원국 ECA에 대한 연체비율은 낮은 수준

- 2019년 9월 말 기준 OECD 회원국 ECA의 러시아에 대한 여신원리금 잔액은 254억 75만 달러(단기 22.99만 달러, 중장기 231.75만 달러)이며, 연체금액은 중장기 1억 670만 달러, 단기 10만 달러임. 이는 1년 전인 2018년 9월 말 기준 수치(9,740만 달러)에 비해서는 증가한 것이나, 연체비율은 전체 잔액의 0.4%로 2018년 9월 말(전체 잔액의 3.4%)보다는 하락한 수치임.

DSA 평가에서는 러시아의 외채지속가능성에 대해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

- IMF는 러시아의 Debt Sustainability Analysis(2019.8월)를 통해 러시아의 외채상황에 대한 기본가정(baseline)에 대해,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이 2018년의 27%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으로 제시하였음. 또한 루블화 가치가 30% 하락한다고 가정할 경우에도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40% 수준에 머물 것으로 평가하였음.⁶⁾

주요 ECA들은 러시아 관련 프로젝트에 대해 각각 다른 인수 태도

- 미국 수은(US EXIM)은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 모두 인수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음. 독일 HERMES의 경우 단기, 중장기 모두 인수 가능하며, 영국 ECGD는 해당기관 앞으로 문의를 요청하고 있음.

국제시장평가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4등급(2020.01)	4등급(2019.02)
Moody's	Baa3(2019.02)	Ba1 (2018.01)
Fitch	BBB(2020.08)	BBB-(2018.08)

국제신용평가사들은 러시아의 신용등급을 그대로 유지

- Fitch는 2019년 8월 BBB-에서 BBB로 한 등급 상향 조정한 이후 러시아에 대한 신용등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 2020년 8월의 평가에서도 코로나19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등급을 유지하고 '안정적(stable)'으로 전망함.
- 또한 Moody's는 2019년 2월 Ba1에서 Baa3로 한 등급 상향 조정한 이후 2020년 12월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음.

6) IMF, Country Report - Russia (August 2019) No.19/260, Annex IV. Debt Sustainability Analysis.

- IMF는 10월 발표에서 올해 러시아의 경제성장률을 6월의 -6.6%에서 -4.1%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러시아 경제개발부도 8월 말 -3.9%로 경제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함. 이른 봉쇄조치 해제 등으로 러시아 경제는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코로나19의 영향을 비교적 덜 받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GDP 대비 총외채잔액, 총수출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 등 외채상환능력 지표들은 코로나19의 여파 속에서 다소 악화되고 있음.
- 7월의 개헌 국민투표 결과 개헌안이 77.92%의 지지율로 통과되어 푸틴 대통령은 2024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가 가능해졌으며, 2036년까지 장기집권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으로는 개헌에 반대하는 시위가 모스크바 등 대도시에서 개최되어 수백 명이 체포되었으며, 하바롭스크 주지사 구속과 관련된 시위도 수개월 간 지속되는 등 푸틴 정부에 비판적인 여론이 확산되기도 함.
- 대외관계에서는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에는 주요 반정부 인사인 나발니의 독극물 중독 등의 사건으로 미국, 유럽 등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음.
- 이상의 상황을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러시아의 신용등급을 기존과 동일한 C1으로 유지하고자 함.